

차례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

· 기념사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03
· 축 사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04
(이종찬 광복회 회장/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05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06



봉오동전투 특별기고

· 봉오동 전투의 배경과 의미 (임성욱 홍범도아카데미 전문위원)	07
-------------------------------------	----



2023 특별기획

·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2)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12
---	----

우리 땅 독도 국토 순례 역사 탐사

·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독도를 만나다 (정우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청강문화산업대 교수)	18
· 홍범도 장군과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만남 (김수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장)	22
· 독도는 외롭지 않다! (한종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4
· 백발백중! 독도는 우리 땅! (성현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27
· The Impact Dokdo Had on my National Identity (김나현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2



시민 기고

· 독립운동가를 좋아하는 아이 (충남 홍성초등학교 3학년 정윤우 학생 부모님)	34
---	----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행 (케게이 블라디미르 예브게니비치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36
· 새로운 경험, 잊을 수 없는 추억 (박세르게이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	37
· 고려인 친구들을 만나다 (박세연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38
· 고려인을 깊이 알게 된 여행 (홍지윤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39



책 소개

· 독립운동연구자료의 지평 확장 : 「간도출병사」 뒤집어 읽기(2) (김연옥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40
--	----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43

회원 동정

48

행 사 소 식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

| 일시 | 2023년 6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후원 | 국가보훈부



· 사회 : 오광영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겸 대전지역모임 대표

식 순

▶ 사전영상

· '승리의 기억 봉오동전투' (국방TV)

▶ 내빈 소개

▶ 오프닝 영상

▶ 국민의례

· 국가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기념사

·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 축사

·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 이종찬 광복회 회장/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 대한독립군 유고문 낭송

· 박석봉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장/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 기념공연

· 태권 퍼포먼스 <발광>

▶ 날으는 홍범도가 / 독립군가 제창

▶ 폐식



기념사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반갑습니다. 이사장 우원식입니다.

얼마 전 새 광복회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찬 회장님!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이자 명예이사장 출신으로 광복회를 이끄시게 되어 더 없이 기쁩니다.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님,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드리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 재향군인회 회원을 비롯한 모든 내외빈 여러분!

봉오동전투 103주년을 맞아 봉오동전투 승전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03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 ‘월강추격대’와 독립전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일궈낸 독립전쟁사에 길이 남을 승리였습니다.

봉오동전투의 승리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고통 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구한말 의병뿐만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들로 구성된 독립군의 승리였기에 겨레의 사기는 더 높이 고양되었습니다. 너도나도 가난한 살림에 의연금을 보태 독립군의 무기구입을 도왔고, 식량과 의복을 비롯한 보급품을 마련하는 데 나섰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국난 앞에서 애국으로 단합했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독립정신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호국정신으로, 국민의 살길을 열어 온 산업화와 국민의 권리를 찾아온 민주주의 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정신으로, 통일을 향한 평화의 정신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길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이자 유해봉환 3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기념사업회는 홍범도장군 유해 봉환 이후 고려인들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독립운동 정신과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과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범도장군 유해봉환 후속 사업으로 홍범도장군 묘역을 기념공원으로 만들고 주변을 홍범도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금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묘역을 봉오동전투의 지형을 형상화한 참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립대학이 협력하여 올해 4월부터 ‘홍범도 컬리지’이름으로 현지 대학 내 IT학과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국의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 전라북도과 크즐오르다주 간 MOU를 맺는 데도 기념사업회가 주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군의 80주기인 만큼, 장군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 단원들을 초청해 의미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제3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합니다. 산포수출신 홍범도장군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으뜸가는 사격대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몇일 전 국가보훈부 출범식에 박민식 장관께서 “용산에 미국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지속적으로 독립전쟁의 무명 독립용사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기념관과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많은 무명용사들을 기억하고 업적을 계승하는 ‘독립전쟁기념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나의 손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내 운명을 외세에 위탁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또 전쟁의 댓가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수 많은 무명용사가 목숨 바쳐 남겨준 뼈아픈 교훈입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선조들과 우리의 노력은 멈춰서는 안됩니다.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운 순국선열들이 굴욕, 굴종외교가 아닌 당당한 자주외교로 국민주권을 지켜내길 원하실 겁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 기념사업회가 작은 밑알이 되어 독립운동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치만입니다.

오늘 독립전쟁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봉오동전투의 전승 103주년을 맞이하는 자리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하여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신 독립군 용사님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원식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 양정숙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03년 전 오늘, 중국 길림성 봉오동 골짜기에서 우리 독립군은 막강한 일본 정규군에 맞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서전이었던 삼둔자의 승전을 시작으로 연합 독립군은 연전연승의 기세를 이어가며 일본군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1920년 6월 7일 군인과 무기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일본군을 속절없이 패퇴시켰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에서도 거둔 승리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다시 독립의 의지를 지켰고, 갖은 시련에도 불굴의 정신으로 대일항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조국광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103년 전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애국심은 광복 이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도 되살아나 국가를 지키고 더 번영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든든한 ‘국가보훈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는 ‘일류보훈’을 실현하여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오동전투를 대승으로 이끄신 홍범도 장군님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이종찬 광복회 회장/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오늘 봉오동 전투 전승 103주년을 맞이하여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해 온 기념사는 놔두고 제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전쟁 하면 두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오동 전투이고 또 하나는 청산리 전투입니다. 일본에 맞선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일본의 정규군과 우리 독립군이 맞서서 전쟁을 한 것은 이 두 전투입니다. 북한에서 보천보 전투를 말하는데 보천보 전투는 솔직하게 말해서 일본의 정규군과 싸운 게 아니라 일선 빨치산 부대가 그냥 도강해서 순경이 4~5명밖에 없는 보천보 파출소에서 했던 전투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전쟁은 아니다 이겁니다. 독립전쟁은 분명하게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독립전쟁을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 봉오동전투 기념일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봉오동전투란 홍범도장군, 최진동장군, 최윤산장군이 모두 모여서 이루어진 독립전쟁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독립군 부대가 일치단결해서. 여기에서 일치단결이라는 것은 그냥 일치단결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편성을 하면서도 이것은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라는 것을 대외에 공표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는데, 일치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국방이 강화된다 이겁니다. 일치된 마음이 없이 분열되면 안 된다, 우리가 얻은 교훈이 이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봉오동 전투의 전술만 볼 것이 아니라 병기가 대단히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병기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체코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는데, 그 군이 철수 하면서 무기를 우리 독립군에게 인계를 해줬습니다. 우리 독립군이 사실은 돈을 내고 산 겁니다. 최재형 선생도 돈을 내고 부인들이 비녀도 뽑아 내고 처자들이 옥가락지도 모아 내고 돈을 모아서 총기를 마련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의하면 총기가 500정입니다. 탄환이 30,000발. 기관총이 2문. 일본 외무성 기록이니까 깎으면 깎았지 보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총기가 500정이 더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들여서 등짐을 지고 러시아 만주 국경을 넘어서 왕청현까지 가서 독립군에게 인계를 해줬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생각해보세요. 살림하느라 바쁜 분들인데 그 국민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무기를 사서 한 지계를 저서 국경을 넘어 가서 홍범도, 최진동, 최윤산 부대에 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가

우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대승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기 없이 화승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신실동 왕산로에 10,000명 가량 의병이 있었지만 총이 부족하고 창 같은 걸로 무장하고 있으니 일본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고 허위 장군은 붙잡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홍범도장군은 비천한 출신이예요.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어렸을 때 절에 가서 밥 빌어먹으며 살 정도로 아주 비천한 계급입니다. 조선왕조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조선왕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 일본으로부터 작을 받고 어마어마한 은사품 받아서 땅을 사고 양반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비천한 계급인 사람들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원식 의원이 봉오동 전투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다시 우리에게 국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결된 마음이 있어야 전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깨워주는 자리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계속해서 후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홍범도함의 장병들이 왔는데 육해공군 다 봉오동 전투의 정신을 받들어서 배워야 합니다. 상하가 일치되고 국민이 일치되고 그러면 누구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한 전투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못 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유해봉환을 요청했더니 카자흐스탄에서 북한에서 굉장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모셔온다는 것을 방해하면서 모셔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범도장군은 진짜 전쟁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전쟁영웅이라고 했는데 홍범도 장군이 오면 진짜 위대한 전쟁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로 유해봉환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용기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홍범도장군의 유해를 봉환했고 이어서 묘역을 성역화하고 또 이어서 독립전쟁 공원을 만드는 것,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원식 의원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를 줍시다. 봉오동 전투 103주년을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굳은 마음으로 우리 선열들의 위대한 투쟁을 우리러 보면서 저의 말을 마칩니다.

축사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 그리고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양정숙 국회의원님, 나치만 서울 지방보훈청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봉오동전투 103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봉오동전투는 지금부터 103년 전 홍범도장군이 지휘하는 독립군이 소수의 병력으로 일본군 제19사단을 섬멸하여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봉오동전투의 승리는 후일 청산리대첩의 원동력이 되었고, 청산리대첩은 곧바로 건국의 표석이 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섬멸한 봉오동전투의 주역 홍범도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큰 획을 그은 위대한 독립전쟁의 영웅이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1년에 홍범도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이 되었습니다. 78년 만에 돌아오신 장군께서는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의 모습에 감동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재향군인회 1,100만원 회원들은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기억하며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안보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고자 합니다. 오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우원식 이사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기고

봉오동 전투의 배경과 의미

임성욱 홍범도아카데미 전문위원

봉오동 전투 새롭게 보기

올해는 봉오동 전투 승리 103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특히 한국독립운동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봉오동 전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봉오동 전투란 간단히 말해 “1920년 6월 7일 중국 길림성 왕청현 봉오동에서 대한북로독군부 및 대한신민단으로 구성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 소속 월강추격대대를 상대로 유인 매복 작전을 펼쳐 통쾌하게 승리한 전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봉오동 전투의 의미는 “강제 병합 이후 한국의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한 전투,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린 사건, 독립전쟁 제1회전의 짜릿한 승리, 독립군과 우리 민족 전체의 독립 의지와 사기를 드높인 사건.” 등의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봉오동 전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 교과서적인 이해를 넘어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봉오동 전투의 전개 과정, 결과 및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책과 논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본지 「날으는 홍범도장군」에서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여러 저명한 학자 및 선생님들께서 글을 써 주셨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측면에 주목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봉오동 전투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왜 일본은 봉오동을 침략했나?

봉오동 전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부분은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웠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전투에 대해 논할 때 ‘싸움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측과 상대 측 부대의 지휘관들은 각각 누구 누구였는지, 우리 측과 상대 측의 병력 수와 편제, 무기는 각각 어떠한지, 전투의 전개 과정은 어땠는지, 우리 측과 상대 측의 전투 목표, 전략, 전술은 각각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측과 상대 측의 전과, 즉 사망자, 부상자 수는 각각 얼마나 됐는지 등등...

그런데 봉오동 전투를 말할 때 정작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독립군과 일본군이 싸운 장소가 ‘봉오동’이라는 사실이다. 봉오동의 위치는 어디인지, 봉오동의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독립군과 일본군은 하필 봉오동에서 싸웠는지 등등...

봉오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점도 핵심적인 점을 말하자면 봉오동은 간도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간도는 주지하다시피 중국 영토에 있기는 하지만 한민족의 생활 터전이다. 그렇다면 일본군 월강추격대대가 봉오동으로 가서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일본군이 봉오동을, 간도를 침략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군은 왜 봉오동을 침략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오동 전투 직전의 국제 정세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제1차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그리고 '러시아 내전' 및 '제국주의 국가들의 간섭군 파병' 그리고 '일본의 시베리아 침공'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러시아의 상황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7년 3월, 러시아 민중의 봉기로 전제군주국 러시아가 무너졌다. (2월 혁명)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가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에트가 결성되었고, 자본가와 지주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임시정부의 수반은 케렌스키였으며, 그는 병사들의 뜻에 반해 제1차세계대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볼셰비키 중심의 소비에트가 권력을 차지했다.(10월 혁명) 소비에트는 공약으로서 제1차세계대전 교전국과의 강화, 토지의 무상 몰수 및 농민위원회 인도, 군대 민주화, 노동자 통제, 민족 자결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약은 노동자·농민·하급 군인 등 대다수 민중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지주·귀족·기득권층의 반발을 샀다. 그들은 이에 반발하여 혁명 정부 타도 및 제정 러시아 부활을 주장했다. 그렇게 러시아는 혁명이 성공을 거둠과 동시에 바로 두 개의 세력으로 쪼개졌다. 그리고 곧 혁명세력인 적군과 반혁명 세력인 백군 간의 내전이 시작되었다.(러시아 내전)

한편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협상국 측은 사회주의 국가 탄생 자체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 게다가 혁명 정부가 1918년 3월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제1차세계대전에서 이탈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를 전선에 묶어 두기 위해 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백군을 지원하는 군사 개입을 추진

하였다.(제국주의 간섭 전쟁)

일본의 시베리아 침공

바로 이 시기 일본은 이러한 러시아 내전과 국제 간섭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시아 대륙 침략의 야망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당시 연해주는 1917년 12월 하바롭스크에서 원동소비에트가 수립되어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한인 최초의 볼셰비키 혁명가 김알렉산드라가 외무위원을 맡았다. 또한 그 영향하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8년 1월 일본 해군은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군함을 입항시켰으며, 4월에는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했다.

한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이후 체코슬로바키아군단(체코군단)은 레닌 정부와의 합의하에 러시아 적군과 백군 양측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이동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유럽 전선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5월에 첼랴빈스크에 있던 체코군단과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헝가리 포로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볼셰비키 정부는 체코군단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체코군단이 이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코군단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방향을 돌려 백군과 함께 모스크바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레닌 정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시베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으며 시베리아를 비롯한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백군의 반격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당연하게도 이제 체코군단은 볼셰비키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프랑스 등 협상국 측은 체코군단 구출을 이유로 미국과 일본에 파병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은 8월에 본격적인 파병을 시작하여 3개 사단 약 72,0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다. 이는 미국군 9,000명, 영국군 7,000명, 중국군 2,000명, 이탈리아군, 1,400명, 프랑스군 1,300명에 비해 압도적인 수였다. 이러한 막대한 수적 우세에 힘입어 일본군은 미군을 제외한 나머지 협상국 측 간섭군 전체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군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동부철도(중동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바롭스크, 아무르주, 만주리, 자바이칼 주의 치타까지 진격하여 바이칼 호수 동부까지 점령했다. 이러한 일본의 폭주는 같은 협상국인 미국조차도 크게 우려를 나타낼 정도였다.

한편 일본군을 중심으로 하는 간섭군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원동 지역의 전세는 백군의 우세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 그로 인해 하바롭스크의 원동소비에트는 9월 초에 백군에게 점령되었으며, 이때 김알렉산드라도 백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일본군은 점령 지역을 중심으로 옴스크의 콜차크 정부는 물론 자바이칼 지역의 세묘노프 부대, 중동철도 지역의 호르바트 부대, 아무르주 지역의 칼미코프 부대, 연해주 지역의 라자노프 정권 등 반볼셰비키 세력을 도와 시베리아 및 원동 지역의 혁명 세력을 공격, 파괴해 나갔다.

적군의 승리, 간섭군의 철수

그런 상황에서 11월 11일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제1차세계대전이 종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간섭 전쟁의 1차 목표 즉, 러시아를 전쟁에 다시 끌어들여 동부전선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적군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고, 체코군단도 아직 귀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간섭군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해가 바뀌어 1919년이 되어서 국제 정세의 가장 큰 이슈는 제1차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강화회의였다. 협상국 측은 한편으로는 파리에서 모여 패전국인 동맹국에 대해 가혹한 배상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레닌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러시아의 내전에 개입하여 백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전 초기 체코군단의 반란 및 간섭군 파병 이래 줄곧 백군에 밀리며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던 적군은 1919년 중반 이후 백군에 대한 반격에 성공을 거두며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결국 11월 14일 콜차크 정부는 적군에게 옴스크를 내주고 이르쿠츠크로 퇴각했으며, 1920년 1월 초에는 사회혁명당계에게 이르쿠츠크를

내주게 되었다. 급기야 1920년 2월 체코군단은 백군을 배신하고 콜차크를 적군에게 넘겨버림으로써 백군 정부가 완전히 무너졌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는 1월 말에, 하바롭스크는 2월 중순에 적군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러시아 내전은 사실상 적군의 승리로 끝나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간섭군 측은 백군 잔당을 지원하여 '레닌 정부를 타도'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적군 편으로 돌아선 '체코군단을 보호'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어 더이상 러시아 내전에 간섭하고 파병을 유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체코군단은 자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1920년 2월부터 귀환이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1920년 1월 영국·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은 모두 자국 군대를 시베리아로부터 철수했다.

일본만 철군하지 않은 이유

그러나 오직 일본만은 철군을 거부하고 계속 주둔했다. 일본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직 체코군단이 완전히 귀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속내는 엄청난 군비를 들여 군대를 파병했는데 영토를 획득하지도, 괴뢰국을 수립하지도, 경제적 이권을 얻어내지도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철군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내전에서 수많은 연해주 한인들이 러시아 적군과 결합하여 빨치산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상 러시아 내전이 볼셰비키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간섭군이 모두 철군한다면 볼셰비키 세력이 러시아 전 지역을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럴 경우 적군과 함께 싸운 한인 빨치산들이 레닌 정부로부터 혁명을 위해 투쟁한 공을 인정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그리하여 그 혁명의 불길을 조선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3·1운동 이후 일제의 강경 진압에 분노를 느끼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항일무장투쟁에 투신하기 위해 만주로 찾아오고 있었다. 만약 이들이 러시아 혁명 세력이나 연해주 한인 빨치산 세력과 결합하여 조선 내로 진격하거나 잠입하여

무장투쟁을 벌인다면, 그리하여 조선에서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혁명이 발발한다면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제국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단적인 예로 불과 얼마 전인 1919년 9월 2일 경성에서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노인 강우규가 속한 노인동맹단도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근거를 둔 단체였다. 그런 점에서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강제 합병 이전부터 줄기차게 항일무장투쟁을 벌여온 연해주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존재였으며,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일본으로 철군할 경우 일본이 겪게 될 위기라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니콜라예프스크 사건(니항 사건)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마치 울고 싶은 차에 뺨을 맞은 격으로 일본인 교민 보호를 구실로 철군을 거부했다. 그리고 연해주 정부에 압력을 넣어 한인 항일세력의 무장을 해제 시키고는 4월 5일 연해주 참변을 저질러 한인혁명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한인들을 학살하고 한인 사회를 초토 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최재형, 김이직, 엄주필, 황경섭 등 한인 민족운동가들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이렇게 연해주 참변을 통해 연해주 한인 사회를 초토화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급한 불을 꺾었다고 판단한 일본은 곧바로 다음 대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그곳은 바로 간도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격 대상은 바로 봉오동이었다.

왜 하필 봉오동이었나?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하필 봉오동으로 들어왔을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일부러 봉오동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삼둔자 전투를 벌인 박승길이 이끄는 신민단 소대를 추격하다가 그들이 봉오동 방향으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쫓아가다 보니 봉오동으로 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봉오동이라는 장소는 일본군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박승길 소대는 처음부터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유인책은 처음부터 흥범도나 최진동이 계획한 것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다.

박승길 소대의 원래 목표는 일본군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삼둔자 맞은편인 함경북도 온성군 강양동으로 잠입하여 온성군 또는 종성군 지역을 습격하는 것, 즉 국내진공이었다. 단지 그 과정에서 강양동 국경초소의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전투를 벌였던 것이고 본의 아니게 월강추격대대를 봉오동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을 뿐이다. 흥범도 역시도 일본군의 월강을 유도하거나 처음부터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만 월강추격대대가 봉오동 근처 고려령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봉오동에서의 유인 섬멸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즉 봉오동이라는 장소는 독립군이 처음부터 전투의 장소로서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독립군과 일본군이 봉오동이라는 장소에서 전투를 벌인 것은 순전히 우연의 소산이라고 봐야 할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3·1운동 이후 만주지역에서는 항일무장단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1910년 강제 합병 이래 서간도 및 북간도에서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무장투쟁을 위한 물적, 인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만주의 항일무장단체들은 1920년 상반기에 엄청난 기세로 국내진공작전을 펼쳤는데, 일본 측 기록과 독립신문의 자료를 종합하면 1920년 1월부터 3월까지 독립군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은 24회 있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32회에 달했고, 일본 관공서와 순사파출소를 파괴한 것이 34개에 달했다. 평균 3일에 1회꼴로 국내진공을 감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진공작전의 공격대상지는 대부분 함경북도 온성 및 종성이었다. 또한 일본 기록에 따르면 북간도 독립군 단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무력 침공을 감행한 부대는 최진동 부대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무려 36회에 걸쳐 종성군을 공격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함경북도 온성군과 종성군 수비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삼둔자 전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경 초소 경비대, 남양수비대 등을 상시적으로 가동시켜 놓았던 것이다. 또한 일본으로서 가장 골치 아픈 독립군 단체는 바로 최진동 부대였으며, 그 본거지인 봉오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군

제19사단은 삼둔자 전투의 소식을 듣고 바로 대규모 월강추격대대를 편성하였으며, 이들의 추격 방향도 봉오동 쪽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삼둔자 전투로 월강한 일본군이 봉오동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은 완전한 우연은 아니었으며 언젠가 한번은 봉오동의 최진동을 손봐줘야겠다고 버르던 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홍범도 부대,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 국민회가 통합하여 결성한 대한북로독군부가 봉오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봉오동은 간도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부대를 훈련시키기에도 좋고, 국내진공 작전을 전개하기에도 좋으며, 방어전을 펼치기에도 좋고, 러시아령으로 이동하기에도 좋은 지리적 조건과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게다가 봉오동을 근거지로 삼은 최진동 3형제는 막대한 군자금과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그랬기에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독립군들은 봉오동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 역시도 완전한 우연은 아니었으며, 언젠가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생각해 보는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미

종합해보면 봉오동 전투는 '1917~1925년 러시아 내전 및 일본의 시베리아 침공으로 한인 빨치산 투쟁이 전개되던 러시아령 연해주라는 시공간'과 '1919~1921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한인 항일무장 투쟁이 전개 되던 중국령 간도라는 시공간'을 연결시켜 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립군과 일본군이 봉오동이라는 장소에서 맞닥뜨리게 될 필연적 조건하에 우연적 요소가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봉오동 전투의 의미는 '러시아 내전 및 3·1운동 이후 연해주 및 간도 한인들의 항일무장투쟁이 거세지자 이를 식민지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로 인식한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1차적으로 연해주 참변을 저지른 후 2차적으로 간도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1920년 6월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시아 최강의 일본군이 독립군 최정예부대의 근거지인 봉오동을 침략하여 독립군을 공격한다'는 필연적 위기 상황을 '잘 준비된 독립군이 스스로 선택한 봉오동이라는 곳에서 오만한 일본 침략군을 격퇴하여 응징해낸다'는 필연적 해법으로 응수한 통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3 특별기획 (총 4회 연재)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2)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친일파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

부하들에 대한 뜨거운 동지애

3차 봉기 이후 홍범도 항일 의병 활동의 주요 무대는 삼수, 갑산을 비롯한 함경도 일대였다. 봉기 후 최초이자 대승리였던 북청 후치령 전투 이후 홍범도 의병은 함경도 일대를 종횡무진하며 승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다. 의병 활동 당시의 동무들은 홍범도가 “계속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전투를 계속하였다”고 회상했다. 1908년에 들어와서도 홍범도 의병부대가 벌인 ‘크고 작은 전쟁’은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홍범도 일지」에 거론된 바 1908년에 있었던 전투들의 이름만 거론하여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삼수성 점령(1.17)과 일본군과의 전투(1.31~2.5)은 그 절정이었다. 이어 ‘갑산을 습격’(2.20), ‘등지벌, 청지평 전투’(2.23.), ‘붉은별 전투’(3.10), ‘용문동 더덩(더덩이)장거리 전투’(4월 초) ‘능구패택이 전투’(4.18) ‘장진 능골 늘구목이 전투’(4.19), ‘동사 다랏치 금전앞 돛뎃 바우골 전투’(4.23),

함흥 동교촌 신성리 전투(4.28), ‘통패장골 쇠점거리 전투’(5.26), ‘갑산 간평 전투’(5.28), ‘구름물령 전투’(5.31), 갑산 청지평 전투(5.31), 괴통병 어구 전투(6.2), 정평 한대골 어구 전투(6.13. 노희태 군대와 연합) 정평 바맥이전투(6.16) 등. 6월까지 홍범도부대가 치른 전투만 해도 20회에 가깝다. 매월 3회에 가깝다. 가난한 함경도 농민들의 피어린 지원이 있었다고는 해도 식량, 의복 등 군수품 공급이 힘들었던 의병들로서는 힘든 싸움의 연속이었다.

홍범도는 일본군의 앞잡이로 전락한 한국군 장교 출신의 친일파 일진회 간부들을 철저히 응징하였다. 예를 들어 홍범도는 부인 단양 이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김원홍과 임재덕 등 일진회 간부들과 휘하 장병 209명을 1908년 4월 2일 거짓 귀순 작전으로 유인한 뒤 진압하고 생포하였다. 과거 진위대 참령 출신으로 일본군 장교가 된 김원홍과 일본군 순사대장 임재덕은 반민족행위에 앞장섰던 일진회 간부들이었다. ‘더덩(더덩이) 장거리’에 설치된 ‘의병 대장소’ 앞에서 홍범도는 이들을 꾸짖었다.

김원홍 이놈 네가 수년을 진위대 참령으로 국록을 수만 원을 받아 먹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시골 산면에서 포지(삽이나 호미로 개간한다는 뜻)하여 감자 농사하며 먹고 지우는 것이 그 나라 국민지도리(國民之道理)(로서) 옳거든 철조약 구조약에 참여하여 나라 역적이 되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될 것이다. 임재덕도 너하고 같이 사형에 다 처한다.

조선놈들아 너희놈들도 들어보아라. 너희나 내나 다 무슨 일이 탈 나서 저런 역적놈들과 나를 해코지 하느냐? 일본 놈은 남의 강토를 제 강토(로) 만들고자 하니 그럴 수 있다 하자. 너희 같은 놈들은 네 아비 네 어미 다 너희하고 같이 씨를 없애야 되겠다.

홍범도는 김원홍과 임재덕을 말뚝 두 대에 각각 얹어 매고 석유를 들썩우고 화형시키고 나머지 2백여 조선인들은 총살하였다.

홍범도는 일본군과 친일매국노들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가혹하였지만 그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고 겸손하여 자기 동무들을 사랑하는데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였다”고 회상했다. 홍범도는 “계속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전투를 계속하였고 행군하다가 좀 위험한 곳에서는 자기가 항상 선봉을 서서 행군하였고 만일 전투하다가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하면 과연 기묘하게 포위선을 피하여서 나오는데, 자기 부하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회피하는 전술이었다.”

계속된 전투와 일본군의 집요한 추격, 탄약의 절대 부족

1908년 여름에 이르러 홍범도 부대는 심각한 탄약 부족 상태에 처하게 된다. 전투를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제에 투항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탄약이 떨어지면 장총은 애물단지가 된다. 노획해서 사용했던 일본총을 던지고 화승총을 사용하자고 하여도 화약이 없어 화승대까지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홍범도 부대는 그동안 전투를 통해 일본군과 친일파 관리와 부호들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확보해왔다. 계속되는 전투와 일본군의 집요한 추격의 결과, 이제는 총기, 특히 탄약 확보가 힘들게 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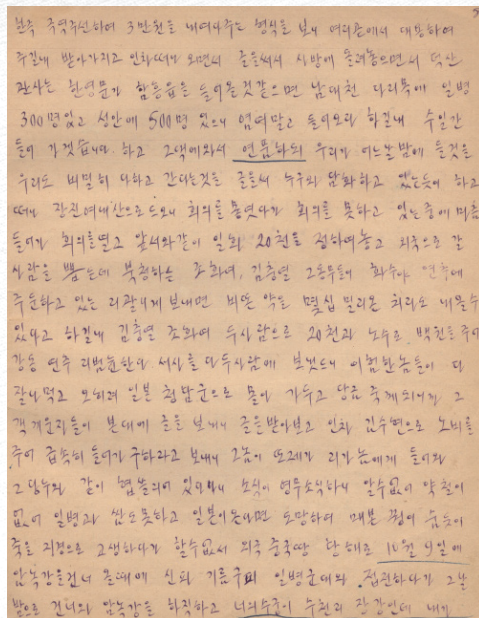
홍범도의 동지 가운데는 홍범도의 독특한 전투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홍범도 의병대의 참모장과 군의를 지내고 후일 서간도로 망명하였고 3.1 운동 후에는 흥업단이란 독립군 단체를 만들었던 김소림(김호)의 증언이다. 그는 홍범도가 “항상 전투 시에는 의병식이 아니고, 정식군대에서 평양 진위대 병정 출신 인지라 전투하는 식이어서, 끝까지 또는 있는 탄환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싸우고 나면 다시 탄환을 정식군대처럼 받을 곳이 없어 곤란하였고, 또 만일 자기한테 탄환이 있으면 다른 군대에 서슴치 않고 나눠 주고 또는 항상 다른 의병부대들과 연합하기를 좋아했으며 서로 화목하게 지냈던 것이 과연 특이하였다”고 회상했다.

홍범도는 탄약 부족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5월 28일 구름물령 군회를 열고 간도로 변해룡, 임재춘, 정일환에게 6백원을 주어 탄약 구입차 중국으로 파견하였으나, 이들은 자금을 낭비하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어 6월 18일에는 군회(軍會)를 열고 조화여와 김충렬 두 사람에게 무기 구입비로 일화(日貨) 2만원과 여비로 일화 100원을 주어 연해주 연추(煙秋)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추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던 ‘간도 관리사’ 이범윤(李範允)에 의해서 일본 정탐군으로 몰려 감금되고 말았다. 홍범도는 김수현을 다시 파견하였지만 그는 이범윤에게 매수되어 버렸다. 탄약 구입을 위해 파견한 요원들이 함흥차사가 되고 만 격이다.

안중근, 우덕순 등 연해주 동의회 의병대와의 연합 시도

1908년 당시 홍범도 의병부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홍범도 부대와 연해주의 동의회(同義會) 의병진 간에 연락과 협력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이다. 동의회 평의원으로 국내 진격 의병부대의 우영장(右營將)이었던 안중근(安重根)은 하얼빈 사건이후 경찰심문 과정에서 1908년 4월 홍범도를 만나러 갑산까지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6월경 홍범도의 요구로 회령에서 회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안중근의 이 진술은 1908년 여름 자신이 지휘한 동의회 의병부대의 국내진공 사실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로 제시한 얘기일 가능성이 크고, 안중근의 진술 외에 현재 이를 뒷받침할 사료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동지이자 1908년 여름(7~8월) 동의회 의병의 국내진공 당시 지휘관이었던 우덕순(禹德淳)이 해방 후에 남긴 회고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덕순은 동의회의 국내 진공의 목적이 무산(茂山)에서 활동 중인 홍범도 부대가 총기와 탄약의 절대 부족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총기와 탄약을 전달하여 강력한 의병부대를 조직하려고 했다고 회상하였던 것이다.



▲ 홍범도의병대의 탄약 부족 상황이 기록된 홍범도 일지(이함덕본)의 일부, 독립기념관 소장

「홍범도 일지」나 다른 기록에서 홍범도의 의사는 확인할 수 없지만, 러시아 연해주 의병세력(동의회)이 함경북도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던 홍범도 부대와 연계 작전을 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홍범도가 이후 국내를 떠나 만주를 거쳐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 이주하게 되는 동기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해주의 동의회 의병 간부들이 홍범도가 파견한 조화여와 김충렬을 통하여 홍범도 의병대의 심각한 탄약 부족 상태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후일을 기약하며 국외 망명 결심

일본군은 1908년 6월~7월 말 대대적인 의병 토벌작전을 벌였고, 그 결과 의병부대들 대부분이 해산하였다. 일본군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군은 의병으로부터 총기 약 600정을 압수했으며, 의병 귀순자가 약 300명에 달하였다. 이 보고서는 “홍범도는 약간의 부하와 더불어 겨우 몸으로써 벗어나게 되고 또한 폭도의 집단을 볼 수 없다”라고 홍범도 부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대공세로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함경도 지방 의병대들이 큰 타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홍범도는 탄환 구입을 위해 파견되었던 요원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고 일본군과의 전투를 계속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홍범도는 「홍범도 일지」에서 “약철이 없이 일병(日兵)과 싸움도 못하고 일본병이 온다 하면 도망하여 매 본 썩이 숨듯이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였다고 회상했다. 마침내 홍범도는 8월 말에 이르러 투쟁을 포기하고 후일을 기약하며 해외 망명을 결정하였다.

이후 홍범도는 9월 10일 추격하는 일본군과 초막동에서 접전하였고, 이어 9월 13일 북청 동피동을 출발하여 금창(金昌)을 거쳐 갑산군 동인사(同仁社) 백암동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가서 남설영(南雪嶺)에서 3일 밤을 노숙했다. 홍범도 부대는 마지막으로 탄약을 확보하고자 1908년 10월 9일(음력) 해산진의 일본군 수비대(150명)를 공격하여 점령했다. 그러나 전투 결과 불과 수십 명의 의병만 남게 되고 일본군의 집요한 추격까지 받게 되어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 통화(通化)로 망명하였다. 이때 만주로 망명한 홍범도 부대원은 40여 명에 불과했다.

홍범도는 해외 망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홍범도 일지」에서 절절히 회고했다. “외국 중국 땅 통화(通化)로 10월 9일에 압록강을 건너 올 때에 신파 기름구피 일본 군대와 접전하다가 그날 밤으로 건너와 압록강을 하직하고 너의 수궁[물줄기]이 수천 리 장강인데 내가 무사히 건너 왔다. 부디 잘 있거라 다시 볼 날이 있으리라고 눈물로 하직하고 통화로 들어와서...” 홍범도의 나이 마흔이었다. 열두 살의 어린 아들 용환이 동행하였다.

홍범도와 동료 의병 40여 명은 통화에서 하루 묵은 후 ‘천삼백리’나 되는 길림(吉林)으로 갔다. “생면부지한 곳에 와서 돈 한 푼 없이” 들이닥친 홍범도 군대 40여 명에게

도움을 준 이는 중국관청에서 통사(通辭)로 일하는 조선사람 길성익이었다. 길성익은 자비 '수십원'을 써서 홍범도 군대가 이를 동안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홍범도는 김창옥, 권감찰, 열두 살짜리 어린 아들 용환 세 명만 남기고 나머지 의병 동지들은 통화로 돌려 보냈다. 무너진 의병대를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준비가 필요했다. 홍범도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선택은 러시아 연해주행뿐이었다.

「홍범도 일지」에는 홍범도 일행이 길림을 떠나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는 고난의 행적이 잘 그려져 있다. 홍범도 일행은 “노자가 없어 이들을 굶고 추위에 떨며 동청철도 간이역에서 만난 러시아 헌병에게 ‘배를 가르키며 먹을 것을 달라’고 비니까 빵 한 덩어리 내어주어 얻어 먹고 요기하였다”라고 회상했다. “먹으며 굶으며 근근히 도보하여 옛새가 되도록 오니까 어딘지 모르고 오다 나니” 술기길(철로)에서 조선사람 셋을 만났다. 이들에게 일면포(一面浦, 현재의 尙志市 남쪽에 위치)로 가는 지름길에서 만난 홍후즈(紅鬍賊) 무리에게 붙들리고 예기치 않게도 이를 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며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

홍후즈 덕분에 기력을 회복한 홍범도 일행은 흥터허재(興德河子, 현재의 海林市 興德河子鎮)의 한인 마을로 가서 옛새를 묵고 한인들이 마련해준 노자 돈을 마련해준 덕분에 쇠살기(기차)를 타고 러시아 연해주 소왕령(蘇王嶺, 현재의 우수리스크)로 갈 수 있었다. 소왕령에서 옛새를 머문 홍범도 일행은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로 내려가 한 달을 머문 후에 연주로 내려가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찾아갔다. 1909년 2월 중순 경이었다. 홍범도는 이범윤에게 자신이 파견한 “김충렬과 조화여 두 사람을 어떻게 일본정탐으로 보냈는가”하고 따졌다. 이범윤은 “나는 그런 줄 저런 줄 모르노라”라고 대답하였다. 홍범도가 다시 “그러면 그 사람을 어찌하여 주르마(감옥)에 가두었던가요” 하니, 이범윤은 “비싸기(비자, 체류 허가증) 때문에 개졌다(간헐했다)”라고 대답했다. 이범윤이 이렇게 대답한 소문이 낭자하게 되면서 연추 주민들이 “이범윤 죽일 놈이라고 누구든지 아니 욕할 자가 없었다.” 이상이 「홍범도 일지」에 기록된 내용이다.

창의대(倡義隊) 조직과 군자금 횡령사건

최재형파와 이범윤파간의 대립 등 동의회 의병진에 크게 실망한 홍범도는 연추를 떠나 추풍 허커우(河口, 코르사코프카) 마을로 갔다. 연해주 의병세력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홍범도는 차라리 국내로 돌아가서 일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소왕령의 최원세가 찾아와 “내가 [군자금을] 주선하여 마련하여 보낼 터이니 걱정 마시고 계시라”며 극력 만류했다. 최원세는 약속대로 각처로 다니면서 의연금 수천원을 모집하여 왔다. 그리하여 소왕령 동남쪽에 위치한 차거우(車巨隅) 비안코에 창의대 본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마침 허커우 마을에 사는 원호인(러시아입적자) 박기만, 김제현, 김왕륜이 자기들이 총기와 탄약을 구입해 주겠다고 자청하였다. 홍범도는 무기거래에 필요한 러시아어를 아는 이들에게 각각 도총무, 부총무, 재무를 맡기고, 자신은 여호촌(비입적 한인 마을) 자피거우의 박문길네 집에서 의병들을 모집하였다. 1910년 3월 11일 회의에서 도총무 박기만은 장총 30정(2,180원), 탄환 3,800개(1,100원) 의병 비자(800원)를 쓰고 나머지는 한 달 비용으로 썼다고 보고했다. 박기만의 군자금 횡령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홍범도는 “우리의 일은 망태기(전혀 쓸모 없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구나”하고 “회의고 뭐고 이 종자들 때려죽이고 말아야 하겠다”고 달려들어 박기만을 단숨에 처서 죽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놀라 도망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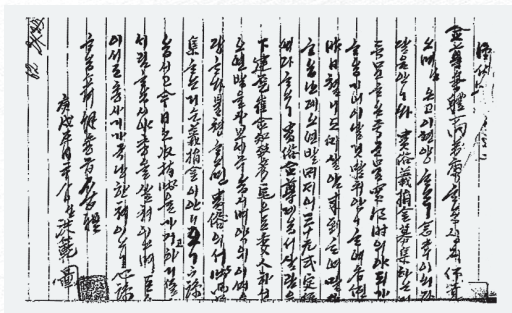
▲ 1909년 12월 창의대장 홍범도와 도총무 박기만의 명의로 된 창의대 임원임을 인증하는 문서

며칠 후 추풍4사(秋風四社)의 원호인(原戶人) 부호들(안준현, 최순경, 문창범 등)이 이범윤의 관리병(간도관리사의 병사)들을 척후병으로 대동하고 250명을 취군(聚軍) 작당

하고 물러와서 자피거우 마을의 박문길 집에 체류하고 있던 홍범도를 감금하였다. 이들이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고 있던 이범윤에게 홍범도 처형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14일 동안, 홍범도는 “죽지 않으리 만큼 술한 매를 맞고 구타”당하였다. 다행히도 홍범도는 소왕령(니콜스크-우수리스크) 러시아군대 사단장이 홍범도의 감금 사실을 알고 카자크(cossack) 군인 8명을 보내어 30여 명을 체포케 한 후에야 석방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홍범도는 원호인 토호들에게 함께 잡혀 죽도록 맞은 동지 30여 명을 추스르고는 무장하고 함북 무산에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33명의 일본군을 사살하는 등 전과를 올렸으나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동행한 의병 모두가 체포되었다. 가까스로 홀로 살아남은 홍범도는 안도현(安圖縣) 내도산(內島山)으로 탈출한 후 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다.

홍범도가 직접 겪은 바, 간도관리사로서 동의회 부총장이었던 이범윤의 무기 구입비 탈취, 박기만 등 원호인들의 의병자금 횡령 사건, 추풍 4사 원호인들의 홍범도 감금 등은 홍범도가 직접 겪은바, 초기 연해주 독립운동단체와 러시아 한인사회 내의 규율 부재, 원호인과 여호인 그리고 양반과 평민 출신 간에 잠재되어 있던 계급적, 신분적 갈등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 창의대장 홍범도가 한인마을의 김풍존(金風尊)에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1910년 3월 28일 자 편지

13도의군, 권업회 등 한인 단체의 간부로

1910년에 들어오면서 일제의 한국 강점은 가시화되었다. 러시아 연해주에 체류하고 있던 한인 망명자들은 마지막으로 다양한 항일세력들을 총결집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준비하였다. 연해주 의병부대가 국내로 진공하게 되면 국내의 의병 세력이 부응하여 일제를 타도한다는 구상이었다. 마침내 1910년 6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의 맞은편 즉, 아무르만 서쪽의 암밤비 지역의 한인 마을 자피거우에서 의병대표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13도의군이 창설되었다. 도총재 유인석, 창의총재 이범윤, 장의총재 이남기, 외교대원 이상설, 도총소 찬모(讚謨) 우병렬에 이어 홍범도는 이진룡, 안창호, 이갑, 이종호 등과 함께 도총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홍범도가 당시 항일운동의 이름난 지도자들과 더불어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간부로 선임된 것은 당시 그의 혁혁한 항일의병활동이 널리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홍범도는 1911년 6월 11일 이종호와 김립 등 함경도 출신들(북파) 중심으로 실업 장려를 표방한 권업회 발기회의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회장은 동의회 총장과 「대동공보」 사장을 지낸 바 있는 한인사회의 원로 최재형이었다. 이어 러시아당국은 북파를 비롯하여 기호파(경기도, 충청도 출신 인사들)와 서도파(평안도, 황해도 출신 인사들) 등 각 파벌이 경쟁을 그만두고 연합하여 통일된 한인 단체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11년 12월 17일 각파를 연합하고 러시아당국의 정식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한인 자치기관 권업회가 창립되었고, 홍범도는 집행부 간부인 사찰부장(또는 경찰부장)으로 선임되었다. 일제 첩보 보고서에서는 “소위 완진파(緩進派)의 이종호와 급진파(急進派)의 홍범도는 이에 서로 악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같은 시기에 홍범도는 이행식, 이행임 등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년회를 조직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하였다. 청년회 회원 대부분은 권업회에 가입하였고, 국내에도 회원을 파견하여 국내 상황을 정찰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홍범도의 나이 마흔 셋이었다. 노인회의 회원 자격은 45세 이상이었다.

이외에도 홍범도는 국권 회복의 목적으로 1912년 1월에 이범석, 유상돈 등이 의형제로 결의 동맹한 ‘21 형제’패에 참여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 노인회 회원, 국민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일제 첩보보고서에 따르면, 홍범도는 1912년 11월 19일 북간도 훈춘(琿春)현의 삼마동(三麻洞) 부근에서 한인 100여 명이 야외에서 연습할 때 사령관이 되어 지휘했다고 한다.

홍범도는 블라디보스토크항 서남단에 위치한 에겔셀드의 부두 하역장에서 3~4개월 동안 의병 동지들과 함께 ‘커우대(자루)’를 메고 ‘세찬꾼(짐꾼)’으로 일하였다. 홍범도는 한인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임금을 모아 거사 자금을 비축하였다. 홍범도는 멀리 아무르강 유역 암군의 금광 땅꾼으로 2년을 일하여 벌은 임금으로 의병 동지 최병준이 살고 있는 추풍 당어재(다야재골, 신길동)로 들어가서 아편재배 등의 농사를 짓기도 하고, 다시 아무르강 하구 니항(尼港,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 근처의 어장에 가서 1년간 ‘어장꾼’으로 일하였다. 곧이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러시아가 일본과 동맹국이 됨으로써 러시아지역 항일민족운동 전체에 위기가 닥쳐왔다. 홍범도 역시 러시아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



▲ 홍범도가 부두하역장 세찬꾼으로 막노동하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부두하역장(에겔셀드 소재)의 모습, 2006년 촬영

우리 땅 독도 국토 순례 역사 탐사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독도를 만나다



정 우 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요즘 물역사적인 일본의 정치적인 행위로 한·일간의 역사가 퇴행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상징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언급이 더욱 침략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지난 3월 31일 “독도 영토 수호 결의 투어”를 기획하고 이사와 회원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0명 참가자 모집을 공지하였다. 나는 이번 독도 탐방이 한·일간에 참여하게 대립하는 독도에 대해 자세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급히 일정을 확인하고 다행히 시간이 되어 서둘러 신청하였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언론과 방송 등에서 ‘독도’에 대한 이야기와 영상을 많이 듣고 보아 왔지만, 독도에 대해 명쾌하게 기억나는 것이 많지 않았다. 우선 이전에 독도를 다녀오신 분들이 낱씨 때문에 울릉도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독도는 파도가 더 거칠어 독도에 배를 정박하는 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하다는 여행 경험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두번째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우리땅 독도를 방문하는데 역사와 정치적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해 보니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난 1982년에 전국적으로 불린 정광태 노래 ‘독도는 우리땅’이었다. 지금도 사이사이 기억나는 “울릉도 동남쪽 옛길따라 200리 (지금 MZ 세대는 팔칠케이[87.4km를 의미]로 부른다고 함) ~~ 세종실록지리지 50쪽에 셋째줄~~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가사에서 삼국시대 신라가 울릉도 우산국을 점령하였고 세종대왕시절에도 기록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져온 것 같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무슨 논리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까?”하고 생각해보니 자세히 아는 것이 없었다. ‘우리땅 독도’를 방문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독도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독도에 오르는 것은 날씨 운에 맡기더라도 독도에 대한 역사와 정치적인 문제는 이번 기회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우리땅 독도 국토 순례’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현재 왜곡이 심해지는 한일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을 결의하는 의미이므로 역사와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독도를 탐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5월 30일 국회에서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의 “국제법으로 본 독도” 강연을 주최하였다.

일본은 2013년 처음 채택한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3개의 안보문서를 다음과 같이 발간하였다. 첫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외교/방위 기본 지침, 둘째 국가 방위전략에서는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 셋째 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서술하였다. 3개의 문서 가운데 첫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나아가 2022년 12월 개정 3개의 문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독도 관련 기존 문구 앞에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고유 영토’는 역사적으로 한번도 다른 나라 땅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의미인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을 국가 공공문서에 기재하고 현재 일본의 최고 책임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의 재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2023. 5. 8.)”고 언급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를 노골화하고 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대한민국 민의의 기관인 국회에서 개최한 호사가 유지 교수의 “국제법으로 본 독도”

강연은 “우리땅 독도 국토 순례”를 떠나기에 앞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독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역사적 국제법적 측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강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의 오키섬에서 약 157k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는 멀지 아니하고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범위를 논의할 때 ‘육안으로 보이는 영토’의 의미는 매우 큰데 ‘독도’는 이미 세종시대부터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영토임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를 울진현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왔는데 일본은 17세기에 처음으로 돗토리번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면서 조선인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때 안용복은 오키섬에 가서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팔도 가운데 강원도에 속해 있음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일본 문서(1696년)에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 돗토리번이 일본 정부(에도 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어느 지방에도 소속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본의 공식 재판기록(1838년) 첨부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셋째, 조선은 1842~1882년에 울릉도에 배를 보내지 않는 사이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거주하였는데, 1882년 고종은 일본인을 일본으로 보내고 울릉도에 조선인이 거주하도록 하는 이주 정책으로 전환하여 울릉도 3섬(울릉도, 죽도, 독도)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을 설치하였는데 범위를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로 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1877년 '태정관 지령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문서로서 확인하였다. 넷째, 일본은 일본 군함 니타카(1904. 9. 25.)에서 독도를 '리안코도'로 언급하고, 독도를 무명(이름이 없는 섬), 무주지(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땅)로 규정하고 죽도(다케시마) 이름으로 시네마현 오키섬에 비밀리에 편입하였다(1905. 1. 28.). 그리고 을사늑약(1905. 11월) 체결 이후 1906. 3월 시네마현 일본 관리가 울릉도에 들러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울도군수 심흥택이 "의정부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사실무근임"을 밝히면서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독도 편입은 조선이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침탈의 결과로서 카이로 선언(1943년), 포츠담 선언(1945년)에서 일본이 폭력으로 취득한 영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영토에 포함된다. 이의 결과로 연합국은 SCAPIN 677호(1946. 1. 29.)를 통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1951. 4. 7.)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지도에서 선으로 표시되었으나 최종안(1951. 9. 8.)에 조선의 독립에서 조선의 영토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으로만 언급되고 일본 영토를 나타내는 선이 지도에서 제거되면서 독도 문제가 생겼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SCAPIN 677호를 계승하므로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영토임이 명확하다. 마이니치 신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1952. 4. 28.)를

설명하는 지도에서 SCAPIN 677호에 따라 독도는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대상인 '분쟁' 지역이 아니다.



▲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 강연

호사가 유지 교수의 강연을 듣고 독도의 역사적 국제법적 측면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본은 17세기에 와서야 울릉도와 독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05년이 되어서 독도가 거주자가 없는 섬이라고 마음대로 정의한 후 침탈하여 뺏은 땅을 '고유 영토'라고 하고 있다. 이번 "우리땅 독도 국토 순례"는 1950년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등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첫날 울릉도에 늦게 도착하여 다음 날 독도를 방문하였는데 맑은 날씨와 비교적 잔잔한 바다로 무사히 독도에 들어가서 30여분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울릉도로 돌아와 오후에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은 일본의 자위대와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방문

어민들로 인하여 조업에 지장을 받는 모습을 보고 홍순철 대장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자발적 의용 수비대를 조직하여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여 군장비를 마련하고 일본과 여러 번의 전투를 벌이며 독도를 지켜낸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기념관에는 나라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 ‘우리땅 독도’를 지켜낸 33인 의용 수비대를 기리고 있지만 울릉군민 전체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울릉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독도를 지켜내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찾은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기지인데 울릉도·독도 해양 지역의 지질, 생태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땅 독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영토 주권을 지키는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질, 생태계 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1960년대 울릉군의 삶을 기록한 희귀한 영상을 보여 주었는데 1950년대 열악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킨 의용 수비대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킬 수 있었는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육지에서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싸움에서 나라의 아무런 지원 없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 나아가 나라의 영토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용기에 다시 한 번 숙연함을 느끼게 된다.



▲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방문



우리 땅 독도 국토 순례 역사 탐사

홍범도 장군과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만남

김수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장

지난해 12월, 오광영 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공동대표를 유성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 자리에서 오 대표께서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수락했다. 제안을 받는 순간, 가슴이 뛰었고, 가슴뛰는 삶을 살고자 했던 내 가치지향과 맥락이 닿아 있었다.

2021년 홍범도 장군을 대전현충원으로 모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없이 가슴이 뛰었고, 한편으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겹쳤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만큼 일생의 큰 결심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결행되었기에 비록 분단된 국가이지만 주권국가의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을 통해 광야로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5.18 때문이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安危와 생명을 지켜야 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역사 왜곡과 여론 조작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 '독립운동 지사들처럼 목숨을 걸을 수 있는가'라는 자문을 수없이 했고, 평생 가슴뛰는 삶을 살자고 결심했다.

무수한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없이 역사 왜곡이라는 질곡은 계속되고 있다.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해체로 인해 내재적으로 친일파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득권 구조와 일상 곳곳에서 친일의 잔재는 늘 살아 숨쉬고 있다. 요즘은 일본의 몰염치한 역사 왜곡과 미래 지향이라는 허울뿐인 관념이 하나로 교차하며 한일 관계와 역사 발전이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의 퇴행적 국면에서 홍범도 장군의 독립 정신은 더 절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2박 3일 계획 중에 금요일은 하루를 연가내고 탐방해야 되는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받자마자 선뜻 참여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역사 왜곡에 대한 분노와 독립 정신의 부활이 더 간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이고, 독도는 그 마음의 결정체로 인식되었다.

울릉도와 독도 방문 일정은 전반적으로 촘촘하고 세밀했다. 일정 수행 중에는 여유가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움직였는데, 막상 지금 생각하면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서 독도의 가치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인 듯했다. 특히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과 울릉도·독도 해양기지 방문은 독도를 지키기 위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기념사업회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

불규칙한 독도의 날씨로 인해 삼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한반도 본토에서 가장 먼 섬, 용암과 바람과 파도가 만든 섬,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못 생명들에게 터를 내준 섬,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대한민국 울릉도의 부속 섬, 독도는 쉬이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방문 이틀째 되는 날, 오전 7시 20분 드디어 도동항에서 편도 1시간 45분이 소요되는 독도 여객선이 출항했다. 하늘은 맑았고 파도는 잔잔했다. 설레임과 조바심이 교차하며 배는 독도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일행들의 표정 속에서 독도 방문에 대한 희망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오전 8시 30분이 지나며 저 멀리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웅장하고 당당한 독도가 본연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함성과 함께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이었다.

독도 방문에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었다.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독도 경비대에 격려품을 전달하고, 단체 사진과 개별 사진까지 찍은 후, 독도의 비경을 감상하고 독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독도 수호를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도의용수비대가 떠올랐고, 일제 강점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독립정신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1953년 일본이 한국전쟁을 틈타 독도에 불법 입도하여 궂말을 설치하는 등 독도를 노골적으로 침략하자, 1954년 봄부터 울릉도 주민은 민간인 신분으로 독도의 용수비대를 창설하여 독도에 주둔하면서 일본의 불법 침략을 방어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군인으로, 전역해서는 민간인 신분으로, 그리고 다시 경찰로서 국토방위에 참여한 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사에 보기도문 사례로, 항일의병 정신을 계승한 역사였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의 주도로 2박 3일 일정 동안 조를 나눠 ‘날으는 홍범도가’를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도 있었다. 마지막 이별의 과정에서는 합창단 결성에 대한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시절은 변했어도 일본의 침략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노골화되고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홍범도 장군이 되어, 독도의용수비대가 되어, 오늘은 오늘의 현장에서, 오늘의 투혼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땅 독도 국토 순례 역사 탐사

독도는 외롭지 않다!



한 종 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 영웅들께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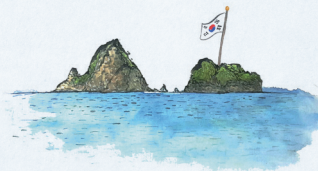
1.

한반도의 막내섬

460만년 전 검푸른 바다위로 솟아올라
한반도의 막내가 된 바위섬 독도(獨島)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총면적 187,544㎡, 최고높이 165.5m,
울릉도 동남쪽 87.4km에 있는 천연기념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동도(東島) 서도(西島) 89개 부속섬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듯
장군처럼 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다.





2.

천혜의 자원 보고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
준령(峻嶺)처럼 일렁이는 파도
평화롭게 비행하는 갈매기와 물새들

한류와 난류의 교차로
미역과 다시마, 소라와 전복
명태랑 오징어랑 연어가 평화롭게 노니는 곳

천연가스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무궁으로 매장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

이 어찌 소중한 우리 땅이 아니리오!

3.

독도를 지켜온 영웅들

신라시대 우리 땅으로 복속시킨 이사부 장군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령임을 확인한 안용복

6.25전쟁에서 부상으로 돌아온 후
M1소총 20정, 실탄 3,000발
M2소총 2정, 실탄 200발
중기관총 1정, 실탄 3,000발
경기관총 1정, 실탄 3,000발로

♪우리는 아노라 삼면의 바다
나라의 흥망도 이곳에 있고
천고의 충의도 이곳에 있다
황파노도 잡아채고 나갑시다
생명선 이 바다로~
지키자 싸우자 이 바다에서~♪

해방행진곡(海防行進曲)을 힘차게 부르며
일본의 침탈을 막고 독도를 지켜낸
홍순칠 대장과 독도의용수비대

어찌 장보고와 이순신의 후예라 하지 않겠는가!



4.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왜놈들
네 이놈!
이 땅이 뉘 땅인 데 감히 넘보느냐!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기록이 명백하고
일본의 막부(1696년)도
다케시마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려
조선령(朝鮮領)임을 확인했거늘
어찌하여 생떼를 쓰는 고~

죽어서 동해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는
문무대왕과 의용수비대의 혼이 서려있는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땅이었다.

이 어찌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표상이 아니라!



5.

독도는 결코 외롭지 않다!

동쪽섬 동도는 이사부길
서쪽섬 서도는 안용복길

방문객수 300만명이 넘도록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고유의 한국령(韓國領) 독도

다시는 왜놈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하나되어
지키고 사랑하리니

독도여! 이제 외로워 마소서!

우리 땅 독도 국토 순례 역사 탐사

백발백중! 독도는 우리 땅!

성현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예상하지 못한 여행이었다.

♫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1.4km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

1982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
무려 41년 전에 만들어진 이 노래!
지금까지도 불러야 하는 이 노래! 우리나라 국민의 애창곡이 된
이 노래의 섬으로 역사탐사를 가게 되었다.

왜? 갑자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우리 땅 독도 국토순례 역사탐사」 행사가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독도 탐방은 홍범도
장군의 항일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 수호
의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유의 영토란? 역사상 다른
나라 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땅이라는 의미!)

첫째 날!

오후 3시!

강릉 한낮의 햇볕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 수 있었던 날! 강릉항에서
쾌속선 시스타 5호에 승선하여 울릉도로 향하였다. 25명의 회원이
웅기종기 앉아서 깊은 푸른 동해를 향해 출발! ‘오호~~ 드디어
난생처음 독도에 가보는구나!^^ 설렘! 설렘!’ ‘울렁울렁~ 울렁대는
내 맘은 괜찮은데, 위장아~~ 너는 제발 참아줘~~~’



오후 6시 10분!

무사히!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하였다. ‘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울릉도이구나!’ 엄마처럼 독도를 품은 울릉도! 그래서 일까? 독도가 있기에 울릉도가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식사 후, 선착장 옆 바닷가에서 담화의 시간을 가졌다. 울릉도 달빛을 받으며 주거니 받거니 오가는 정담(情談)! 우원식 이사장님의 ‘사랑가’와, ‘독립군가’ 박준수 이사님의 유수불후회(流水不復回) 시조 가락은 울릉도 푸른 밤바다를 꿀잠으로 잠재웠다.

둘째 날!

오전 7시 20분!

울릉도의 청정한 아침 기운이 나를 산소(O₂) 같은 여자로 만드는 듯^^ 울릉도 도동항에서 독도행 시스타11 여객선에 승선하였다. 1년에 약 20일 정도만 독도에 입항할 수 있다는 설(說)! 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說)! 이 무색할 만큼 1시간 45분 동안의 뱃길은 평온하였다. ‘감사! 감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덕(德)이구나.’

오전 9시!

독도를 지키는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독도!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 해저 2,000m에서 솟아오른 용암의 작용으로 생성된 섬! 동도, 서도 및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섬!

그런데 왜? 군인이 아닌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을까? 군인은 국경이나 분쟁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런데 독도는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다.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니가 경찰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도경비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국내외에 천명하고 독도를 수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즉,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독도에 머문 시간은 아주 짧은 20분 정도였다.

하지만 독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애국자가 되었다.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머리띠도 하고, 태극기를 몸에 두르기도 하고, 일행이 아닐지라도 태극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태극기를 그냥 주기도 하였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독도의 숨결과 정신을 카메라에, 가슴에, 눈동자에 담았다.



나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애국심도 반짝 눈을 뜨며 나를 일깨워주었다. ‘독도야~~ 고마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모두 널 사랑한다. 너는 대한민국 애국심의 표상이며, 자존심의 상징이야. 독도야~~ 독도의용수비대가 널 지켰듯이 우리도 영원히 널 지켜낼 거야~~ 잘 지내.’ 아련한 마음으로 울릉도를 향하여 승선하였다. 독도경비대 배웅의 손짓, 독도의 그 파란 마음과 담대한 눈빛을 기억하고 싶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일어났다. (물론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지만ㅠㅠ) 울릉도를 가는 뱃길은 역방향이어서 파고가 0.4m가 되었다. 게다가 우리 일행 자리는 배의 앞자리인지라 앉자마자 놀이동산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울렁울렁! 나의 한계를 시험하였다. ‘오마야~~~ 우짜노~~~ 여기저기서 뽀뽀! 어? 언제 오리가 승선했지?^^’

오전 11시 10분!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여 곧장 「관음도」로 이동하였다. 관음도와 울릉도를 이어주는 출렁다리가 있어서 관람하기 좋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이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관음도는 갯이갈매기의 집성촌인 듯, 갯이갈매기들이 떼지어 살고 있었다. “키아아웅~~~키아아웅~~”(갯이갈매기 울음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닮았다고 함.)

오후 12시 30분!

독도 이해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1945년 해방 후,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1953년! 일본은 뜬금없이 스리슬쩍! 독도에 일본영토 표시 팻말을 세워놓았다. 이에 울릉도 주민(홍순칠 대장 외 32명) 들은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방위하고자 자발적으로 민간인 경비대를 만들었다. 목숨을 걸고서, 개인재산을 헌납하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독도 지킴이를 자칭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 그런데? 홍순칠 대장과 홍범도 장군은 남양홍씨! 재미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 이야기는 감동이 뭉클뭉클! 찌릿찌릿한 전율이 일었다. 타임캡슐이 있었다면 당장 독도의용수비대로 달려가서 밥이라도 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독도를 사수하라! 팻말전쟁! 전시된 팻말들을 보면 그 당시의 살벌했던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3년 8개월의 사투(死鬪)! 목대포 스토리! 개인재산으로 대구칠성시장과 부산국제시장에서 무기를 사들였던 홍순칠 대장! ‘나였으면 그렇게 나라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을까? 갈매기알과 빗물로 연명한 의용수비대의 어려웠던 생활!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숙연해졌다. 더불어, 나는 어린이의 애국심 교육이 절실함을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이 뭉클한 애국심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이 찌릿찌릿한 감동의 전율을!’ ‘애국심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 애국심 교육은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가치를 뽐게 하며, 우리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데….’

오후 2시 이후!

유월의 화창한 햇볕을 친구삼아 울릉도의 여러 곳을 탐방하였다. ‘울릉도도 식후경! 울릉도의 유일한 평야 지대! 나리봉지에서 늦은 점심 (산채비빔밥)을 먹었다. 잠깐! 비빔밥의 매력은? ‘내 잘났다~~ 네 잘났다~~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가 되는 것?^^ 포만감으로 느긋해진 버스는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로 향하였다.

「울릉도·독도해양기지」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해양생태 전시관’과 ‘강당’에서 해양생태계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연구원님의 진솔한 열정이 담긴 해박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점점 울릉도·독도에 대한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제 울릉도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 「해중전망대」는 별다른 장비 없이 수심 6m에 해당하는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들이랑 눈맞춤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울릉도 바닷속이라는 사실이 또 새롭게 와 닿았다. (우째? 이렇게 물고기가 떼지어 있을까? 궁금했는데, 일정량의 먹이를 주어서 모인다고 함^^ 먹이 따라 몰리는 물고기! 사람은 무엇 따라 몰리는가?^^)

‘이제는 울릉도 산 위로 올라가 볼까?’ 「태하항목모노레일」은 총연장 304m의 레일에 20인승 소형차 2대가 동시 운행하며 등판각도 39도, 1분당 50m의 속도로 산정상까지는 약 6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근데! 가파른 모노레일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이었다.^^) 가파른 모노레일을 타고 잠깐 올라가니 「항목전망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항목전망대」에서는 우리나라 10대 비경 중 하나인 대풍감(바람을 기다리는 곳)을 볼 수 있었다. 절묘한 주상절리와 에메랄드빛 바다로 어우러진 대풍감의 해안선! 아슬아슬한 바위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 천연기념물 49호 향나무를 보니 독립운동가 정신과 오버랩 되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며 자라난 향나무와 독립운동가의 공통점! 곳곳한 의지와 향기가 있다는 점일까?^^ 「향목전망대」에서 독립운동가처럼 하늘 높이 만세를 부르며 뛰어올랐다. (모 이사님의 배꼽이 보였지만 사실은 옷으로 밝혀짐^^)



「향목전망대」에서 내려올 때는 40분 정도 걸어서 내려왔다. 삼삼오오 숲길을 걸으며, 비경의 해안선에 감탄하며, 저녁노을에 물들며, 울릉도와 주변 섬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울릉도 2일 차!

저녁식사는 울릉도 자연산 회와 문어로 맛나게 먹을 수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독도와 울릉도를 섭렵하고 나니 행복한 나른함으로 콜콜! 울릉도 꿈나라로 직행하였다. '혹시? 독도~~ 음~ 날으는~ 홍범도~~ 백발~백중~~이라고 잠꼬대하지 않았을까?^^'

셋째 날!

오전 10시!

♬햇볕은 쨍쨍! 물빛은 반짝!♬ 유람선을 타고 울릉도 주변 작은 섬들을 돌아보았다. “전설 따라 울릉도~ 삼선도 이야기를 아십니까?” 유람선 기사님의 안내방송 따라 눈과 귀로! 자연풍광의 극치를 만끽하였다. ‘음~~ 역시! 지역 명소에 스토리텔링이 빠지면 망물이지~~^^’

오후 11시경!

「봉래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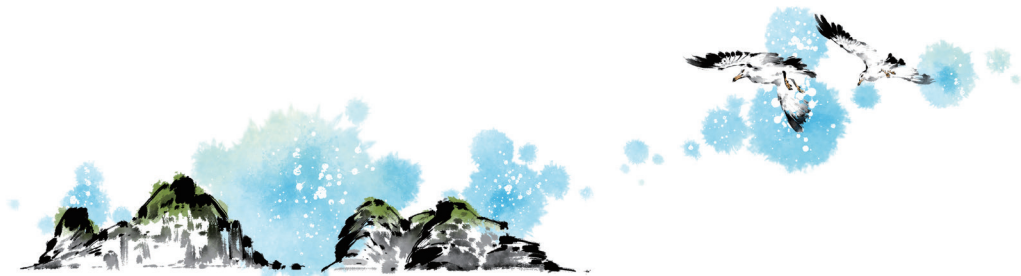
3단폭포로 연결된 「봉래폭포」를 오르내리는 길은 엄청 더웠다. 그러나 봉래폭포 입구에는 풍혈(천연에어컨)이 있었다! 자연의 신비함에 감탄하면서 땀 한줄기 날려버리고, 녹두전과 더덕무침에 땀 한 사발 마셔버리니, 메리 감쪽 같이 몸도 마음도 시원하였다.

오후 1시!

울릉도 저동항에서 따개비칼국수로 점심을 먹었다. (나는 봉래폭포의 녹두전으로 빵빵해서 패스^^ 대신 저동항에서 나홀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짐^^)

오후 3시!

「우리 땅 독도 국토순례 역사탐사」 2박 3일 일정이 마무리 되는 시간이었다. 울릉도 올 때보다 더 많아진 보따리! (울릉도 오징어와 미역, 기념품 등) 멀게만 느껴졌던 울릉도와 독도가 이웃처럼 느껴졌다. 또한 함께 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들과 친해져서 남 같지 않았다. ‘소속감 up 최고의 탐방!’ 강릉항으로 돌아오는 바닷길은 여전히 평온하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행문 끝이 아님을,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안다! “그거 있잖아! 그거 빠지면! 이번 팀방은 꺾이지~~” 맞다! 맞아! 「우리 땅 독도 국토순례 역사탐사」에는 우리 만의 의식(儀式)이 있었다. “두둥두둥두둥~~ 바로바로바로!” <날으는 홍범도가>와 <백발백중>이다. 식당에서도, 차 안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잠자면서도, 그 어디든 상관없었다!

♫왜냐고 묻지도 마라! 무조건! 무조건이다!^^♫

옆구리 툭 칠 필요 없다!

오토매틱 가동! 4절까지 불러야 하는 홍범도가!

백 마디 말이 필요 없다!

딱! 한마디로 소통 공감 백배! 백발백중!

이사장님의 끈질긴 열창에 감동하여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에피소드!^^

<1절>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일월이 평랑한데

래적 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후렴: 에헴야 에헴야 에헴야 에헴야 래적군대가 딱 쓰러진다. ♫

(후렴 리듬을 잘 맞추어야 한다! 에헴야 구절이 생각보다 어렵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땅 독도 국토순례 역사탐사」를 되돌아보면서 읊조려본다. 독도와 독립운동가! 민족정체성과 민족적 자존감을 지켜준 독도와 유·무명의 독립운동가!

“단결! 독립운동가의 숨결과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에헴야~~♫”

우리 땅 독도 국토 순례 역사 탐사

The Impact Dokdo Had on my National Identity

김나현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When my mom asked me if I wanted to go to Dokdo, I thought, “Can I really go to Dokdo? Is it that simple?.” I have always thought of Dokdo as a place in the textbooks, not somewhere I could visit. To be honest, I did not give it much thought when I agreed to go.

I assumed it would be a fun little trip like every other fun little trip I have been on. However, my perspective quickly changed once I arrived in Dokdo.

We first went to Ulleungdo from Gangneung. When I saw the itinerary when we got to Ulleungdo and realized I had to wake up at 5 in the morning (yes, 5 AM) to go to Dokdo, I wanted to hop back on the ferry and go back to Gangneung. But soon enough, I had a change of heart. After all, not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go to Dokdo, right? I decided to embrace the commitment required. To my surprise, waking up early was not too much of a struggle, and the ferry ride to Dokdo was quite nice because the ferry was not porpoising as badly as I had expected.

When we finally arrived in Dokdo, I tried to act like a chill tourist, but deep inside, I was brimming with excitement. It was the Dokdo. The Dokdo I

read about in my textbook and the Dokdo I saw in documentaries. The fact that I was in Dokdo, just beyond the ferry’s entrance door, was almost surreal. When the door opened, I could only get a glimpse of Dokdo due to the people rushing out of their seats and disembarking from the ferry all at once. However, as I got close to the door, I could see more of Dokdo, and it felt like stepping into an entirely different country.

I was astounded that the big island in front of my very eyes was indeed Dokdo. It possessed a captivating beauty, with the azure sky, seagulls soaring high in the sky, the perfect blend of green and blue in the ocean, and of course, the magnificent island, creating breathtaking scenery.

Every few seconds, the exclamation “우와”(whoa) filled the air. Seeing everyone holding their little Korean flags so preciously evoked a sense of nationalism within me.

Close to the ferry was a drawing of 강치(gangchi, Dokdo sea lions). I later learned that gangchi had gone extinct during Japan’s occupation of Korea, as every gangchi was hunted and killed for its

byproducts by the Japanese. It would have been fascinating to see gangchi in person along with many other animals that went extinct during Japan's occupation.

When I shared pictures and videos of Dokdo on my Instagram story, many of my Canadian friends liked them and asked me if I was in Korea, as their prior knowledge of Korea only consisted of BTS, Seoul, and Squid Game. Their reactions sparked something in me. I realized that I had never felt such pride in being Korean before. I was and still am beyond happy that I could contribute to spreading the beauty of Korea and sharing the fact that Dokdo is a beautiful, magnificent island in Korea with my friends all around the world.

After a quick tour around Dokdo, it was time to get back on the ferry. An air of melancholy surrounded me. It was a short time spent in Dokdo, but long enough to make me not want to leave, so I tried my best to capture every bit of Dokdo with my eyes. Have you ever seen a sunset so beautiful that you do not even take photos, but simply stare at the sky in awe? It was just like that. I wanted to remember the scenery forever.

I could hear the ferry staff calling everyone back, while they took their final glances at Dokdo, probably feeling the same way as I did. It is easy to book a trip to Dokdo, yet it takes a stroke of luck to visit because both the waves and the weather have to be on your side. Fortunately, I was able to visit Dokdo with no trouble.

The highlight of this trip was seeing Dokdo with all the amazing people I met through the Hong Beomdo organization, and the key takeaway from this trip was that we need to appreciate our charming island,

Dokdo. In our lives, we often overlook the significance of small things that are not part of our daily routines. However, it falls upon us to recognize their value and significance, for if we fail to do so, they risk losing their worth. The same holds for Dokdo. We must appreciate the fact that an island like Dokdo exists in Korea, and we have the privilege to visit it whenever we want, unlike every other country.

Visiting Dokdo was not like any other fun little trip. It was a valuable trip with continuous learning an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I will cherish forever.



시민 기고

독립운동가를 좋아하는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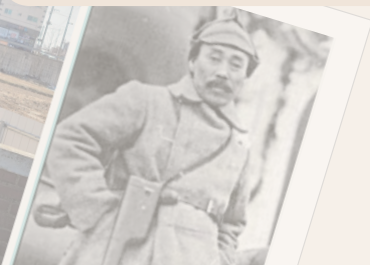
충남 홍성초등학교 3학년 정윤우 학생 부모님

윤우는 어릴 때 다른 아이들보다 말은 늦게 트였지만,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폭 빠져 하나만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5살때인가 책에서 거북선과 이순신을 보고 처음으로 위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홍성은 지역적인 요인으로 홍주 의병과 역사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고장이라 윤우가 더 독립운동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김좌진
장군과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등에 대한 책과 김좌진생가지, 예산 윤봉길
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효창공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에 관심을 갖고 생가지를 여러 번 견학하던 중 백운평전투에서
김좌진 장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를 이끈 또 다른 인물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포수출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봉환소식을 보고 “엄마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신 홍범도 장군 묘가 있는 대전 현충원에 가 보고 싶어”해서 다녀오게 되었으며, 꽃보다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장군묘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아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반나절은 머물렀던 기억이..

윤우가 홍범도 장군을 좋아하는 방법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지고 놀던 블록이나 놀이터 모래로 봉오동을 만들어 전투장면을 재현하거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홍범도 장군의 모습을 따라 하기도 하며, 가끔은 총 쏘는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며, 윤우가 꽤 좋아하는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가를 좋아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윤우처럼 친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생활하며, 친구들도 독립운동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케게이 블라디미르 예브게니비치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의 3학년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런 곳을 여행할 때마다 자신감도 생기고, 기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여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여행 덕분에 어두운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원 봉사자인 인천대학교 대학생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착하게 보여서 여행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자원 봉사 학생들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더욱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가 갔던 관광지는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남산타워입니다. 작년에 저는 수학 여행으로 남산에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산으로 올라가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신선한 비가 와서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화목한 분위기가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산타워 전망대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름이 끼서 창문으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0분 정도 후에 구름이 사라졌고, 모든 도시를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분위기는 제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 간 후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아주 맛있는 돈까스를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역사와 흥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분도 장군은 한일전쟁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흥분도 장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골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 후에 강제적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남은 삶을 보내셨고,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대통령 덕분에 흥분도 장군의 유골이 대전 묘지로 운송되어 한국 땅에 묻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경복궁으로 갔고, 그곳에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 곤룡포를 입고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청와대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앞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화려한 공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박세르게이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



새로운 경험, 잊을 수 없는 추억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온 박세르게이라고 한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 유학생이다. 한국에 온 지 2달 되어서 한국문화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도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있는 여행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얼마 전에 <대한고려인협회>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 공동으로 주최한 청소년 투어에 참여했다. 고려인 청년 35명의 대표들이 이 투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인천 대학교 러시아어 학과의 한국 대학생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 여행 하루 전, 나는 짐을 다 준비해냈고 기대가 아주 컸다. 여행 당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출발했다.

첫 여행지인 남산타워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모여있던 참가자들과 만났다.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 우리는 다 같이 로비에 모여서 지도자의 여행 개회사를 들었다. 잠시 후 우리는 다 같이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갔다. 케이블카를 타는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남산 타워에 도착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을 챙긴 친구들은 우산을 안 챙긴 친구들에게 우산을 빌려주었고, 다 같이 서둘러서 남산 타워에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에서 잠깐 둘러보고 사진도 찍었다. 이런 경험을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었다. 남산 타워를 둘러본 후 점심 식사를 하러 돈가스 카페에 갔다.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여행 이야기를 나눠서 좋은 인상과

감정을 주고 받았다. 식사 후 버스를 타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했다. 다음 여행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인 경복궁이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복을 입어 볼 수 있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경복궁을 재미있게 구경했다. 지도자가 우리에게 경복궁의 역사를 소개해주고 우리는 한국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잠깐 둘러본 후에 우리는 다 같이 버스에 타고 마지막 여행지로 이동했다. 마지막 여행지는 청와대였다. 청와대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옛날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 안내원들이 우리에게 청와대의 역사를 소개해주었다. 안내원들의 소개를 들으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다. 청와대에 처음 와 보니 너무 재미있었고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경험이 되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것이 이 여행의 가장 슬픈 추억이 되었다. 여행하는 동안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친하게 놀고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모두 가까이 친해져서 헤어지는 순간이 가장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여행이 기가 막힐 정도로 재미있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한고려인협회>가 주최한 여행에 참여해서 매우 만족스럽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경험과 체험해 봤더니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또 해보고 싶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박세연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고려인 친구들을 만나다

대한고려인협회에서 학부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운 좋게도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프로그램에 봉사활동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고려인들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국의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었던 적이 있다. 다큐멘터를 보면서 민족적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이 극장에서 수위로 일하시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안산과 광주, 인천 등지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대한민국 공군에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복무하였었는데 2021년 8월,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적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공군의 호위를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홍범도 장군께서 고향 땅, 한반도로 돌아오시는 것을 라이브로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었다.

내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평소에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던 대학생으로서, 러시아어 전공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대한고려인협회에서 봉사활동을 제안해주셨던 것이었다.

4월 15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안산의 센터 앞에서 고려인 청소년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바로 남산으로 이동해 서울에 와있던 인원들과 합류했다. 남산에서 우리 팀이 결성되었다. 2딸의 어머니셨던 32살의 엘레나 유가이씨,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에서 온 올라, 알료나 샤파발로바 자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1년 전에 한국에 온 아니타까지 총 4명이었다. 남산에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비가 내린 바람에 친구들에게 서울의 멋진 풍경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45년 전통의 돈가스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대한고려인협회 채 이사님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경복궁으로 이동했는데 궁에 입장하기 전에 고려인 친구들과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한복을 빌려서 입었다. 고려인 친구들에게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국적은 다르지만 역시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러시아어는 기본적인 표현만을 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엘레나 씨가 한국어를 하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고려인들과 어울려 경복궁을 탐방했으며 한국 학생들은 한복 대여점에서 버스로의 이동과정에서 고려인들을 인솔했다. 그 다음 청와대로 향했는데 청와대의 집무실, 접견실 등 많은 시설들을 우리 팀에게 설명해주었다. 청와대 관람이 끝나고 나서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번호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했다.

고려인들과 함께했던 봉사활동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언어 교환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고려인협회와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사이의 행사를 정례적으로 해서 서로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홍지윤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고려인을 깊이 알게 된 여행

저는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학생으로서 고려인동포자녀역사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려인들과 서울의 명소들에 방문하며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소통하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흥범도기념사업회 디아스포라분과에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인상 깊었던 점 4가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려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의 다양성과 역사에 대해 깊이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은 한국과 러시아의 양쪽 문화를 아우르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역사나 전통적인 의상, 음식 등에도 관심이 많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고려인의 역사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경복궁에서 함께 한복을 입었을 때는 강제이주라는 아픈 역사를 상기하며 현재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고려인들을 한민족임을 체감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고려인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 들으며 저는 그들에게 존경과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며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서울의 명소들을 탐방하면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발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본 것은 좋았지만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우산을 같이 쓰면서 친밀감이 생겨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조선시대 궁궐 건축에 감탄했습니다. 저희 조에 동양화를 전공한 고려인 친구가 있어서 경복궁에서 볼 수 있는 건축미술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한국의 정치와 역사를 배우고 고려인들과 한국 역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인들과 서울 탐방을 즐겼고 함께

탐방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셋째, 러시아어를 사용하면서 저는 언어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배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그들이 얘기하면 저는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단어나 문법이 틀리거나 발음이 이상하면 고려인들이 저에게 알려주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려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듣고 전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언어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러시아 실력을 길러서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자신감과 성숙함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웠고, 러시아어 실력이 부족했기에 러시아어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즐겁게 서울 명소를 돌아다니며 고려인들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즐기며 저는 고려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친구가 되고 같이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고려인의 관계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고, 고려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통해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언어의 힘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낯선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과 성숙함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경험과 감정을 잊지 않고, 한국과 고려인의 우호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독립운동연구자료의 지평 확장 : 「간도출병사」 뒤집어 읽기(2)

김연옥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지난 호에서는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에서 충돌했던 일본군의 간도침공 전략과 작전에 대해 정리한 「간도출병사(間島出兵史)」(조선군사령부 편, 김연옥 번역, 경인문화사, 2019)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통해 독립운동사 연구에 어떻게 접목시키면서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언급했다. 1920년 일본군에 의한 간도침공과 간도학살을 자행한 실태를 ‘출병’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데서 이미 유추되듯이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하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간도출병사」 목차는 제1장 출병전 정황, 제2장 작전 행동, 제3장 선전활동 및 교섭사항, 제4장 출병의 효과, 제5장 주력 철퇴 후의 정황, 제6장 장래에 대한 소견 및 참고사항, 부록과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간도출병사」의 사료적 가치는 본문 제1장~제6장 다음에 이어지는 <부록과 지도>에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량면에서도 본문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에는 부록자료에 대한 번호표기는 없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열람의 편의를 위해 번역자가

부록 번호를 부여했는데¹⁾, 그 중 <부록 12~17>자료가 간도참변(또는 경신참변) 사례의 대표적 예시가 된 ‘장암동(또는 장암촌) 학살’에 대한 실태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하지만, <부록>편 수록자료는 원래 일련번호도 없고, 꼼꼼히 읽지 않고서는 앞 본문 문서와의 관련성을 찾기도 어려우며, 첨부문서만 두서없이 나열된 상태여서 얼핏 보면 중요한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이 원(原) 작성자였던 일본 육군성의 의도였을 수 있다. 원래 「간도출병사」는 일본군 내부 보고용 극비(極秘)문서로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 실제 출병에 참여했던 히가시 지대장에 의해 한 차례 ‘정리’되는 작업을 거친 부분도 있으므로, 특히 국제적 비난의 표적이 될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축소 기록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가, 특히 부록자료가 가지는

1) <부록 제1>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 <부록 제2-1> 간도사건에 관해 조선군 참모에게 지시한 사항, <부록 제2-2> 참모본부 제1부장이 조선군 참모에게 지시하는 사항, <부록 제3> 참모본부 작명(作命) 제57호, <부록 제3-2> 참모본부 명(命) 제497호-1, <부록 제3-3> 육군성 송달 육밀(陸密) 제218호, <부록 제4> 간도출병과 국제연맹규약과의 관계, <부록 제5> 훈춘-간도사건에 관한 국제법 연구, <부록 제5-2> 훈춘-간도-조선 내 각 방면 비행실시에 관해 각대 및 지방관헌에게 내리는 지시사항, <부록 제6-1> 참모본부 작명(作命) 제61호, <부록 제6-3> 참모본부 명(命) 제520호-1, <부록 제7> 훈시, <부록 제8> 참모본부 작명(作命) 제60호, 참모본부 명(命) 제512호-1호, <부록 제9> 훈시, <부록 제10> 병졸의 명심사항, <부록 제11> 고시(告示), <부록 제12> [성서(聖書) 행상인 이근식 및 同村 조선인 4명 참살 현황 보고, 장암동 도살 사건에 대한 선교사의 보고, 이의 제기 등], <부록 제13> [부록12에 대한] 변박(辨駁) 자료, <부록 제14> 장암동 부근의 토벌 정황, <부록 제15> 길림독군공서 내한(來韓) 초록에 대한 조사표, <부록 제16> 사이토 대좌에게 보내는 길림독군공서 공함(公函), <부록 제17> 미즈마치 대좌가 용정촌 외국인 선교사에게 보내는 각서, <부록 제18> 귀순자 취급에 관한 규정 개정 건 하달, <부록 제19> [간도파견대] 경비 규정 건 하달, <부록 제20> 중일국경순찰장정변법(案), <부록 제21-1> 참모본부 작명(作命) 제62호, <부록 제21-2> 참모본부 명(命) 제534호-1, <부록 제21-3> 육밀(陸密) 제95호 간도에 남겨진 부대 철퇴에 관한 건 하달 / 이하 附表, 附圖.

사료적 가치나 의의는 다소 ‘엉뚱하게’ 배치되어 있는 각각의 문서를 토대로 사건 관계자의 이름이나 지명을 단 서로 다른 자료와 교차 검증시 「간도출병사」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사건의 편린을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일본 육군성 내부에서도 ‘제2의 제암리 사건’으로까지 칭해질 것을 우려했던 장암동 학살에 관한 선교사들의 생생한 기록과 증언, 항의서신의 일부가 「간도출병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찾는 ‘문고리’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간도출병사」 <부록 제12>의 갑·을·병·정(甲·乙·丙·丁) 4개 보고서 중 특히 장암동(장암촌) 학살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료는 정(丁)이므로, 정(丁) 자료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췌 인용한 후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다.

(丁) 장암동 도살(屠殺)사건²⁾

다음에 기술하는 사실은 중국 길림성 남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예증이다. [중략]

우리들은 10월 31일(일요일) 날이 막 밝을 무렵, 함께 북경마차를 타고 용정촌을 출발하여 용정촌에서 12리 떨어진 작은 계곡의 곡지(谷底)에 위치한 장암동으로 향했다. [중략] 이하 10월 30일에 해당 마을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항들을 다수 목격자들의 견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날이 밝을 무렵 무장한 일본 보병의 일대(一隊)가 기독교 마을을 빈틈없이 포위하고 골짜기 안쪽 방향에 있는 벼단을 쌓아놓은 곳에 방화하고 촌민 일동에게 집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였다. 촌민들은 가능한 한 [친자관계를 숨기고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녀라고 부르지 못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를 사살했고, 반사(半死)인 채로 쓰러져 활활 타오르는 건초 더미에 덮여 금세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버렸다. 그 사이 어머니도, 아내도, 자녀들도 마을 내 성년 남자 모두가 강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가옥은 전부 불타버리고 그 일대가 연기로 뒤덮여 當市(용정촌)에서도 그 불길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일본 병사는 이렇게 한 후 이 지역을 떠났다. [일본 병사들은] 곡지(谷地)와 본가도(本街道) 사이에 있는 촌락 중 기독교도가 있는 집을 전부 불태워 버린 후 천장절 축하연 길에 올랐다. [중략]

내 옆에서 몇 명이 시체에 부착된 흙을 털어내었는데, 몇 곳에 총탄 흔적이 있었고 사지가 구부러지고 수축되고 검게 그을린 노인의 시체가 드러났다. 소각을 면한 것은 머리부분 뿐이었고 순백의 두발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들은 시체 및 기타 분묘 2곳을 촬영한 후 곡단(谷端)을 향했다. 곡단에서는 화재가 36시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가 계속 타면서 악취가 나고, 가옥의 기둥이 타서 쓰러지면서 나는 광음이 들렸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불탄 19채의 집을 촬영하였고, [중략] 그 사이 나는 이교도들의 도움으로 타고 남은 곳에서 시체 한 구를 운반해 왔다. [중략] 시체의 신체 일부와 다리 하나가 없어서 그것을 찾아 나섰으나 상당히 떨어진 곳에 누어 있었으며, 이것을 4번 촬영하였다. 그 사이 많은 부인들이 목 놓아 울었고, 나 역시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니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짙은 연기가 자욱해서 필요한 촬영시간 중 사진기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 [중략] 찬송가 합창이 끝난 후 노인들은 기도를 올리고, 여자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의 묘 앞에서 애통해 하면서 앉아 있었다. 이교도인 중국인과 조선인 등의 대군집(大群集)은 머리를 숙여 눈에 고인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 지켜보았다. 큰 나무 아래에 있는 교회당은 지금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갔고, 2동으로 구성되었던 학교의 큰 건물도 마찬가지로 운명에 처해졌다. 나는 이어 분묘를 세어보니 31개였다. 각호(各戶)는 그 죽은 자의 집 곁에 매장되었다.

타버린 시체를 끌어내고 그것을 매장하는 데 하루 종일이 걸렸다. 모두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이를 행하였다.

2) 조선군사령부, 김연옥 번역, 「간도출병사」, 311~315쪽 해당.

* 참고로 위 번역서는 2쇄가 더 정확하다. 1쇄를 꼼꼼히 읽으신 후 오타를 지적해주신 반병률 교수님께 본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나는 그들과 이별을 고하고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사살된 다른 2곳 마을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는 도중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도 죽음은 면한 자를 문안해 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전부 불탄 가옥 19채, 무덤 및 시체 36구를 목격했다. 나는 용정촌으로 돌아오자마자 만취한 일본 병사와 마주쳤고, 시가지에 일본국기로 펄럭이는 것을 보았다. [하락]

1920년 10월 31일 S.H.마틴

* 밑줄 및 굵은 글씨 모두 인용자에 의한 강조임

위 내용에서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위에서부터 7째줄 ~ 13째줄에 해당하는 굵은 글씨체와 밑줄로 강조한 부분이다. 즉, 마을 내 성인 남자는 모두 강제처형 되었고, 반사(半死) 상태인 채로 태워져 가는 가족의 모습을 목격하게 하는 비극의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세~네 번째 단락에서는 가옥이 불타고 시체를 태우는 약취가 36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실태, 신체 부위가 분절되어 나뉘는 참담한 상황, 그 현장을 사진에 담아낸 언급이 기술되어 있다. 위 사료상에서의 사상자 수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내용으로는, 끝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장암촌에서는 가옥 19채 소실(燒失), 교회당 2곳 소실, 분묘 31개가, 다른 인근 마을에서는 가옥 19채 소실, 시체 36구를 목격했다는 기록이다.

영어 원문 편지상에서 “The Norapawie Massacre”³⁾로 표현되었던, 마틴 선교사의 (丁) 보고서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간도출병사」에 수록된 기록만으로는 선교사의 과대과장 보고와 그에 대한 육군성 간부인 미즈마치 대좌의 서신을 통해 작은 문제로 일단락된 듯한 이미지를 준다. 그러나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밝혔지만, 장암촌 학살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용정촌 일대에 거주하던 마틴과 푸트 선교사 등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의 파견 본부인 캐나다 토론토의 장로파 전도본부로 보고되고, 영자 신문을 통해 세계 각지로 알려지면서, 영국 대사의 항의를 비롯, 캐나다 전도본부와 시미즈 총영사, 일본

본국의 외무성 및 육군성을 총체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독립운동사’ ‘독립운동가’라고 할 때 전투 일선에서 무장(武裝)투쟁한 사례나 활약하신 개인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므로 그분들의 희생을 재평가 혹은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위에서 인용한 사료의 첫줄에서 표현되었듯이, “길림성 남부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예증”이 장암동 도살(屠殺)사건이었다면, 더 많은 마을에서 이처럼 참혹한 사례가 계속되었다는 증언이기도 한 셈이다. 일선에서 앞서 싸우는 독립군을 돕다가 무참히 희생당한 또 다른 ‘독립군’이자 후방지원군이었던 한인촌의 참변 사례를 계속 발굴해 가는 작업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항목으로 이어져 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조선군사령부(김연옥 역), 「간도출병사」, 경인문화사, 2019
- 김연옥, 「1920년 북간도 장암촌 학살 재검토」 『일본학』 52, 2020
- 김연옥, 「간도침공에 대한 일본의 언론 보도와 인식-요미우리 신문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9, 2022

3) 예를 들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6031225600, <間島出動の帝国軍隊の行動に対する非難弁解材料取調方に関する件(1)> 사료 1014쪽에서 확인 가능.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1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2023년 4월 15일(토) 남산타워, 경복궁, 청와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대한고려인 협회와 함께 국내 거주 고려인의 학생들과 서울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고려인 동포 학생 36명이 참가하고, 홍순계 상임이사, 채예진 이사, 성원용 홍범도 아카데미 전문위원이 함께 했고, 인천대학교 학생 5명이 봉사를 해 주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2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

2023년 5월 4일(목)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603호(여의도동, 라이프콤비빌딩)



기념사업회가 유상으로 사무실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이전하여 홍범도장군 관련 자료 전시 및 보관 장소를 확보하였다. 또한 회의 공간이 마련되어 각종 회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조만간 새 현판을 걸면서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3

국제법으로 본 독도 강연

2023년 5월 30일(화)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세종대 호사가 유지 교수의 '국제법으로 본 독도' 강연을 통해 독도가 당연한 우리 고유의 땅임을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 힘들게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의 이종윤 사무처장과 장경욱 부장이 참석하여 독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4

우리 땅 독도 국토 순례 역사 탐사

2023년 6월 2일(금) ~ 4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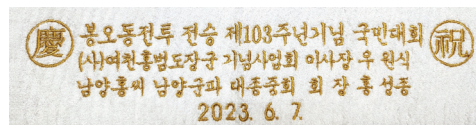


우원식 이사장 및 정성호 국회의원과 회원 25명이 울릉도와 독도 국토 순례를 다녀왔다.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량한데, 왜적 군대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가사처럼 이번 기념사업회가 독도에 들어가는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 파도 하나 없었다고 한다. 울릉도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방문하여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5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

2023년 6월 7일(수) 국회 도서관 대강당



올해로 103주년 맞는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원식 이사장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회원들과 귀한 내빈들이 자리를 같이 해 일본군에 대항한 첫 독립전쟁의 승리의 쾌거를 함께 축하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양정숙 국회의원, 홍재구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중회 회장, 신흥중 홍범도함 중위, 조지용 홍범도함 상사, 채예진 대한 고려인협회 부회장, 장동선 노원구재향군인회 회장, 김을동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회장, 이용재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 홍일량 순국선열 영각회 회장, 최성주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회장, 조진웅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보대사가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특히, 홍성중 남양홍씨 남양군파 대종중회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고급 수건을 행사 기념품으로 마련해 주셨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6

제3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2023년 6월 8일(목) ~ 11일(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공공사격장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무장 독립전쟁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고,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이룬 홍범도 장군과 이와 함께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를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제3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는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일에 맞춰 6월 7일에 개회식을 갖고,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강원도 춘천시 춘천공공사격장에서 대회가 열렸다.

10M 공기권총과 공기소총 경기에 총 364명의 전국 시니어, 주니어 선수들이 출전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막상막하의 대회를 펼쳐어 관중들도 사격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홍범도장군의 뒤를 이어 사격을 함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6월 7일 개회식에는 우원식 이사장, 황원섭 부이사장 등 기념사업회 임원을 비롯하여, 김은수 대한사격연맹 회장과 임원, 육동한 춘천시장, 이강균 춘천시 체육회장, 그리고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강원도 사격연맹, 강원도 재향군인회, 춘천시 재향군인회, 서울 노원구 재향군인회와 대회 참가 선수단이 참석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7

춘천 의병마을 역사 탐사

2023년 6월 10일(토) ~ 11일(일)



2023년 6월 10일, 11일 이틀에 걸쳐 우원식 이사장과 황원섭 부이사장 등 이사와 대전모임 회원 22명이 홍범도장군과 의병활동을 했던 의암 류인석선생의 기념관이 있는 춘천시를 탐방하고, 춘천공공사격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를 방문하여 선수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시상식을 함께 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8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기이사 선임

2023년 6월 10일(토) 강촌 해와달 펜션



기존 등기이사의 임기 만료로 임시총회를 거쳐 우원식 이사장, 황원섭 부이사장, 홍순계 상임이사, 박석봉 이사, 반병률 이사, 부윤경 이사, 정내하 이사 7명이 새로운 등기이사로 선출 되었다. 임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3년이다.

회원 동정



우원식 이사장

우원식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 고문을 맡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6월 26일부터 15일간 반대투쟁 단식농성을 감행했다.

5월 24일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을 만나 고려인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고, 6월 13일 카자흐스탄 잔브르쉬 에딜 생태환경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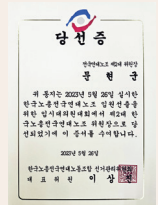
이종찬 명예이사장

이종찬 명예이사장은 5월 25일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당선되어, 6월 2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문현군 이사

문현군 이사는 5월 26일 한국노총의 직할조직인 전국연대노동조합 2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명우 이사

이명우 이사는 4월 30일에 청해이씨 시조 청해백 이지란을 모신 남양주 청해사에서 2023 춘제 겸 대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서 청해이씨 추밀공파 양덕문중 22대 이명우 이사가 청해이씨 대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청해이씨 시조인 청해백 이지란은 태조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로 이성계를 도와 조선건국에 일등공신이 된 고려말 조선 초기 명장이다.